

	독 일 (프 랑 크 푸 르 트) 사 무 소 해 외 동 향 보 고 서	작성팀	마케팅지원팀
		담당자	정훈희 소장
		일 시	2024.10.

CEPA Insight

- 독일은 리튬 등 핵심 원자재 수입 구조의 취약성 탈피를 위해 노력 중
-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현지 파트너사 발굴 등 적극적인 진출기회 모색 필요

1 독일 대표 경제연구소들, 올해 경제전망치 하향조정

- 독일 5대 경제연구소*, 9. 26.(목) 추계 경제보고서 발표
 - 올해 GDP를 3월 전망치 0.1%에서 -0.1%로,
 - '25년 전망치는 1.4%→0.8%로, '26년 1.6%→1.3%로 각각 하향 조정
- ※ 독일경제연구소(DIW Berlin), 뮌헨 Ifo 연구소, 에센 경제연구소(RWI), 할레 경제연구소(IWH), 킬 세계경제연구소(IfW Kiel)
- 동 경제연구소들은 연방정부의 정책이 현재 독일 내 팽배해 있는 불안감 및 경기 약세에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지적
 - 기업과 가계들이 경제안정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 △세부적인 규제 완화, △개별 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, △변화된 시장 경제적 적응 프로세스를 위한 공간 확대 등 경제정책 대전환 요구
- ※ 출처 : Handelsblatt (www.handelsblatt.com/politik/konjunktur/konjunkturausblick-fuehrende-institute-halten-wachstumspaket-fuer-unzureichend/100073192.html)

2 연방 내각, 6억 유로 상당 전기차 세제 혜택 도입 논의

- 연방 내각은 9. 4.(수) 6억 유로 상당 전기차 세제 혜택 도입을 의결
 - 법인 전기차 구매 시 첫해에는 전기차 구매 비용의 40% 세금 공제, 이후 5년간 순차적 공제 비율 축소(5년차 → 5%)
 - 직원이 업무용 차량을 제공 받을경우 비현금 혜택 관련 차량 가격의 1%를 세금으로 부과하나, 전기차의 경우 95천 유로 이하까지 0.25% 적용
- ※ '23년 12월 독일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 이후 전기차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전기차 신차 등록 지속 감소, '24. 7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36.8%↓
- ※ 출처 : Handelsblatt (www.handelsblatt.com/politik/deutschland/automobilbranche-steuervorteile-fuer-e-autos-von-mehr-als-600-millionen-euro-geplant/100065897.html)

③ 작센-안할트주 소재 유럽 최초 리튬 정제소 가동 개시

- 독일의 희토류 그룹인 AMG(Advanced Metallurgical Group)는 9. 18.(수) 작센-안할트주 비터펠트에서 리튬 정제소 가동을 시작
 - 동 공장에서는 연간 2만톤의 수산화리튬이 생산될 계획으로, 헝가리 및 폴란드 음극전지 제조업체에서 약 50만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 전망
 - 동 공장은 계획된 5개 모듈 중 하나로 5개 공장 모두 완공시 수산화리튬 10만톤 생산 가능, 이는 2030년 유럽내 예상 수요의 14%에 해당
- 이는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 자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
 - 다만, 현재 AMG가 비터펠트에서 처리하는 원자재 80%는 브라질에서 생산중으로, 중간 생산단계를 위해 중국으로 운송해야 하는 여건은 유럽의 운송 전기화의 해외 의존도 탈피에 장애물로 작용
- 이와 관련, AMG는 독일에서 직접 리튬을 채굴하기 위해 '30년까지 독일 에르츠 산맥 일대 매장지를 개발할 계획으로
 - 동 계획 실현 시 연간 60만대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리튬 채굴 가능

※ 출처 : Handelsblatt (www.handelsblatt.com/unternehmen/energie/energie-in-sachsen-anhalt-eroeffnet-europas-erste-lithium-raffinerie/100067952.html)

④ 독일정부, 10억 유로 규모 원자재 펀드 출범

- 연방 경제기후보호부와 연방 재무부는 독일개발은행(KfW)에 10억 유로 규모의 원자재 펀드를 조성할 것을 요청하는 공동 서한을 발송
 - 원자재 펀드 조성의 목표는 독일 기업의 원자재 공급을 보장하고, 타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, 공급망 및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것
- 정치권은 원자재 펀드 설립의 필요성에 합의했지만, 경제부와 재무부가 프로젝트 지원 방식에 대해 의견 차를 보이며 수 개월간 논쟁이 이어져 옴
 - 이번 결정에는 원자재 펀드를 통해 정부가 대출 지원뿐만 아니라,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경제부의 입장 반영
- 독일산업연맹(BDI)은 "원자재 펀드는 원자재 주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"라며, 정부의 자본 참여 가능성도 매우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

※ 출처 : Tagesspiegel (www.tagesspiegel.de/wirtschaft/weniger-abhangig-von-china-rohstoff-fonds-der-bundesregierung-steht-12391067.html)

5 폭스바겐 독일 공장 사상 첫 폐쇄 가능성

- 폭스바겐은 9. 2.(월) 수익 개선을 위한 비용 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독일 내 완성차 공장과 부품 공장 각각 1곳의 폐쇄 방안 검토 중
 - 또한 1994년부터 유지해 온 고용 보장 협약도 철회한다고 발표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, 일자리 2만여 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
- ※ 현재 독일에는 볼프스부르크 본사 등 6개 지역(공장)에서 약 12만명 근무
- 9. 4.(수) 열린 폭스바겐 노사회의회에 참석한 직원 2만 5천여 명은 올리버 블루메 최고경영자(CEO) 등 경영진을 향해 “우리가 폭스바겐이고, 당신들은 아니다.” 등 구호를 외치며 노사 간 충돌 격화
- 정부 대변인은 올라프 숄츠 총리가 9. 4.(수) 폭스바겐 경영진, 노사협의회 대표 등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히며,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회사의 몫인바, 연방정부가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힘.
- ※ 출처 : Tagesspiegel (www.tagesspiegel.de/wirtschaft/autokonzern-in-der-krise-kanzler-scholz-fuehrt-gesprache-mit-vw-12316712.html)

6 독일 스타트업 지원책 ‘원 이니셔티브’ 통해 120억 유로 투자

- 숄츠 총리는 9. 17.(화) 베를린에서 열린 ‘스타트업 서밋에서 ‘원 이니셔티브 (MN-Initiative)’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120억 유로를 독일 스타트업 생태계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
 - 독일AXA, 자산운용사 블랙록(BlackRock), 독일 증권거래소, 뮌헨 재보험 (Munich Re) 등 20개 이상의 대기업과 연방투자자본협회, 독일 스타트업 연합 등이 원 이니셔티브 의향서에 서명하였고 투자에 참여할 예정
- 독일 정부는 벤처캐피털 펀드에 공적자금 투자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온바, 이번 원 이니셔티브를 통해 바이에른 연금관리공단의 참여를 확보하였고, 원자력기금(Kenfo)과 세대자본재단(Stiftung Generationenkapital)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힘
- 데이터 분석업체 피치북(Pitchbook)에 따르면 2023년 독일 스타트업에 투자된 자금은 40% 이상 급감했고, '24년 신생 독일 유니콘 기업은 전무
- ※ 출처 : Handelsblatt (www.handelsblatt.com/politik/deutschland/start-ups-deutschlands-start-up-szene-erhaelt-zwoelf-milliarden-euro/100067587.html)